

그림으로서의 진리

| 월인 |

모든 전해지는 진리는 결국 마음의 상으로서의 진리이며, 그래서 마음속 그림의 일종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알았다'거나 '깨달았다'고 여겨지는 마음이 들 때 그것 역시 마음의 그림 속에서의 일이며, 거기에마저도 머물지 말아야 함을 보여줍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4. 각의覺義

그림으로서의 진리

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 離念相者, 等虛空界, 無所不遍,
소 언 각 의 자 위 심 체 리 념 이 념 상 자 등 허 공 계 무 소 불 편

法界一相, 卽是如來平等法身.
법 계 일 상 즉 시 여 래 평 등 법 신

依此法身說名本覺.
의 차 법 신 설 명 본 각

각의覺義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떠난 것을 말함이니, 생각을 떠난 상相이란 허공계와 같아서 두루 하지 않은 바가 없어, 법계가 모두 하나의 상相이며, 바로 여래의 평등한 법신이다.
이 법신에 의지하여 본각本覺이라고 이름한 것을 말한다.

각의覺義, 즉 ‘깨달음의 뜻’은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떠나있음을 이른다고 했습니다. “각覺이라는 것은~”이라고 하지 않고 “각의覺義라는 것은~”이라고 하여 말이 엄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념離念 또는 이념자離念者라고 하지 않고 이념상자離念相者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떠났다는 것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을 떠난 상相이라는 것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생각을 떠난다는 것도 하나의 상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의 저자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상相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끊임없이 주시킵니다. 즉 일종의 드라마, 스토리 속에서 구성하는 ‘그림으로서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에 속지 말고 말이 의미하는 바를 즉각 알아들어 깨우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경험하고, 생각을 떠나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 “나는 생각을 떠났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이념상자離念相者”입니다. 생각을 떠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상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허구이기에 생각을 떠났다는 것도 없고, 따라서 생각을 떠난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떠난 상(離念相者)은 허공계와 같아서 두루두루 편만하고 온 우주 전체가 하나입니다. 여기서의 법계法界는 진리의 세계뿐 아니라 모든 현상의 세계 또한 포함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통해서 진리가 발견되므로 현상이 곧 법法이기 때문입니다. 법계일상法界一相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허공계와 같은 불이不二의 세상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하나의 상相입니다. 본각本覺이란 전 우주, 전 존재계, 모든 현상계가 결코 나눌 수 없는 유기적인 하나라는 의미의 법계일상法界一相, 다른 말로 법신法身에 의존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가 분리되지 않은 불이不二의 세상으로 체험되고 보여질 때 드디어 본각本覺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何以故.

하 이 고

本覺義者, 對始覺義說. 以始覺者, 卽同本覺. 始覺義者, 依本

본 각 의 자 대 시 각 의 설 이 시 각 자 즉 동 본 각 시 각 의 자 의 본

覺故而有不覺, 依不覺故說有始覺.

각 고 이 유 불 각 의 불 각 고 설 유 시 각

어째서인가?

본각本覺의 뜻이란 시각始覺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 시각이란 바로 본각과 같기 때문이며, 시각의 뜻은 본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언가 불각不覺이 있으며, 불각不覺에 의하므로 시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논論]

본각의本覺義도 일종의 상相입니다. 본각本覺은 시각始覺에 의존하고, 시각始覺은 불각不覺에 의존하고, 불각은 본각에 의존하고…. 이렇게 돌고 도는 이유는 모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본각도 시각도 불각도 없다고 합니다. 본각은 근본적인 깨침이고, 시각은 깨침이 조금 시작된 것입니다. 물속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물에 뜰 줄 알게 된 것이 시각이고, 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마음대로 떠다니는 것이 본각이라고 앞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었죠.

원문에서 ‘본각의 뜻은 시각의 뜻에 대응하여 말한 것’이라는 의미는, 본각을 정의할 때 ‘시각과는 조금 다른 이러한 것이 본각이다.’라고 시각에 의존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없으면 본각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시각과 본각이라는 것은 모두 우리가 나눠놓은 것입니다. ‘시각과 본각이 같다(始覺者, 卽同本覺)’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의미로, 시각에는 본각과 같은 측면이 있기에 역시 각覺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각이 완벽한 각覺이라면, 이에 비해 시각은 뭔가 부족한 불각不覺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기에 본각과 시각으로 나눠놓은 것이지요. 즉 시각에는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불각不覺의 의미와, 말에 의존하므로 구분하기 위해 시각이라 말한다고 했습니다. 시각始覺과 본각本覺을 견성見性和 완전한 대각大覺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견성은 이제 겨우 본성을 알아챈 것이고, 대각은 완전하게 깨친 것입니다. 견성 안에는 대각과 질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같지 않은 덜 깨달아진 부분도 있으므로, ‘견성’ 안에는 불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대각과 견성이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대각이 본성자체가 된 것이라면, 견성은 본성을 본 것이므로, 성性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은 서로에게 의존한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깨침이 시작된 시각始覺, 깨침의 본질적인 부분이 드러난 본각本覺, 깨치지 못한 불각不覺이 있습니다. 시각은 본각에 비하면 불각의 측면이 있으므로 이 둘의 구분은 불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불각이란 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시각은 본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本性的의 맛을 봤다는 의미에서 시각은 본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본각이기도 하고 본각이 아니기도 합니다. 또 시각은 본각에 비하면 불각이지만, 각覺이 있기는 하기에 완벽한 불각은 아니므로 불각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제 불각에 대해 살펴보면, 불각이 있는 것은 본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각과 불각을 나눈 것이므로 불각은 본각에 의존합니다. 즉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불가결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각이 본각은 아니지요. 따라서 불각은 본각이 아니지만, 본각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각과 불각도 서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불각不覺, 시각始覺, 본각本覺은 모두 본질적인 자성自性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원자, 전자, 양성자가 있다고 여겼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그것들은 모두 에너지 끈 string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원자, 전자, 양성자가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르게 각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들에는 자성自性이 없습니다. 관계에 의해 경계지어진 에너지들일 뿐입니다. 자성自性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독립적인 스스로의 성질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각, 본각, 불각도 자성自性이 없습니다.

개념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분별이란 표면적으로는
 생각과 이름이지만 그 아래는 ‘느낌’의 분별이 있고,
 그것보다 더 아래에는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 쌓인
 경험의 흔적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은 본각 때문에 있는 것이고, 본각이 있기에 불각이 있고, 불각이
 있기 때문에 본각이 있습니다. 서로간의 관계에 의해 구별될 뿐입니
 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기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으면 깨달은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는 “우리는 모두 깨달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깨닫지 못함이 있
 습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개념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들을 철저히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개념 속에 빠져 있음을 발
 견하게 되고, 개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개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념에서 빠져나온
 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분별이란 표면적
 으로는 생각과 이름이지만 그 아래는 ‘느낌’의 분별이 있고, 그것보다
 더 아래에는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 쌓인 경험의 흔적들의 차이가 있습
 니다. 즉, 개념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별’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때만 가능하기에 분별없음, 위없이 평등한(無上平
 等) 바른 깨침(正覺)에 이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깨달음, 깨닫지 못함, 견성, 본각,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마음은 개념의 세계에 빠져 있는 마음입니다. 각覺도 불각不覺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또 각불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념과 상관없는 세계로 갔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분별의 세계에서 개념에 빠져있을 때는 각覺과 불각不覺이 있습니다.

각의覺義라는 것은 나와 대상의 분열이 허구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의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나와 대상’으로 분열된 상태 속에 있음을 말하며, 모든 생각 또한 이러한 분열을 기반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야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움직일’ 내가 생기는 것이고, 이 움직임이 우리가 ‘의식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려는 것은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개념으로 나뉜 모습이 아니라 그 어떤 분별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땅’은 이미 서울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미 있는 그 자리가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곳으로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의미입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서울과 부산은 개념이며,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 어디에도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의覺義는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불이不二의 법계일상法界一相이고 이것이 본각本覺의 의미입니다. 모든 일상이 이미 진리의 법계인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분열 속에 있을 때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놈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므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고 부처와 중생이 있습니다. 그

러나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나눔과 분별의 세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감각상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상태는 본질의 그림자죠. 감각상태로 들어가면 ‘나’도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없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지 않은 텅 빈 상태인데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분별의 세계를 떠나면 거기에는 깨달음도, 깨닫지 못함도, 부처도, 중생도, 나도, 너도 없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부처와 중생이 있는 분별의 세계에서 노력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라는 ‘나눔’이 없는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와 중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없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보라

본각本覺은 심체心體가 불각상不覺相(깨닫지 못함이라는 상相)을 떠난 것입니다. 불각不覺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불각상不覺相을 떠난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아직 안됐어, 나는 아직 모르겠어.”라는 마음이 불각상不覺相입니다. “나는 미진해.”라는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마음에는 ‘내’가 있고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미진함도 미진하지 않음도 없는데 그러한 상相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자꾸 미진함이 올라오는데 “이 미진한 마음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럼 잊어버리면 되겠네.” 또는 “아! 이런 게 없는 거구나.” 한다면 ‘없다는 상相’을 또 만들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깨닫지 않음도 없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하고 있다면 깨달음도 깨닫지 않음도 없다는 상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것들은 상相을 떠나는 것과는 완전

히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파악하면 저
절로 상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 또 다른 상을 붙잡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시각始覺에 대한 원효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次釋始覺，於中有二．先顯亦對本覺不覺起義．後對不覺釋始
차 석 시 각 어 중 유 이 선 현 역 대 본 각 불 각 기 의 후 대 불 각 석 시

覺義．此中大義，欲明始覺待於不覺．不覺待於本覺．本覺待
각 의 차 중 대 의 욕 명 시 각 대 어 불 각 불 각 대 어 본 각 본 각 대

於始覺．
어 시 각

既互相待，則無自性．無自性者，則非有覺．非有覺者，由互相
기 호 상 대 즉 무 자 성 무 자 성 자 즉 비 유 각 비 유 각 자 유 호 상

待．相待而成，則非無覺．非無覺故，說名為覺．非有自性名為
대 상 대 이 성 즉 비 무 각 비 무 각 고 설 명 위 각 비 유 자 성 명 위

覺也．略明二覺竟在於前．
각 야 락 명 이 각 경 재 어 전

다음은 시각을 풀이하였으니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는 또한 본각
을 상대하여 불각이 일어나는 뜻을 나타냈고, 뒤에서는 불각에 대하여 시
각의 뜻을 풀이하였다. 이 중의 대의는 시각이 불각을 기다리고, 불각이
본각을 기다리며, 본각이 시각을 기다리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미 서로 기다리는 것이라면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다면 각覺이
있지 않을 것이요, 각이 있지 않은 것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이다. 상대하
여 이루어진다면 각이 없지 않을 것이요, 각이 없지 않기 때문에 각이라
말하는 것이지, 자성이 있어서(즉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각이라 하
는 것은 아니다. 두 개의 각을 대략 밝힘을 앞에서 마친다.

[소疏]

대승기신론 원문에서 시각을 풀이하면서 처음에는 본각이 있으
로 불각이 일어남을 말했습니다. 본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놓았기에
이에 대비하여 불각도 말할 수 있으므로 본각이 없으면 불각도 없습니
다. 그다음에는 불각에 대하여 시각의 뜻을 풀이하였습니다(始覺義者,

依本覺故而不覺, 依不覺故說有始覺), 시각과 본각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시각이란 말 안에는 본각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각은 부족한 그 불각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시각 안에는 불각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시각과 본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과 본각에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본각 또한 시각을 통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본각은 시각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각은 불각에 의존합니다.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깨닫지 못함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이다. 그런데 부처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 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본각은 불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부처라면 본각 상태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새롭게 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불각은 본각에 의존하고, 본각은 시각에 의존하고, 시각은 불각에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각각은 특별히 독립적인 본성이 없다(無自性)는 것이고, 각覺이라는 것만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자성無自性이라는 말은 비유각非有覺(‘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님)이고 또한 비무각非無覺(‘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님)입니다. 만약에 깨달음이 없다면 무각無覺이라 하면 되는데 비유각非有覺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무자성無自性, 즉 깨달음의 본질이 없다는 의미는 “깨달음이 무엇이나?”고 물어봤을 때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할 만한 본질적인 특성이 없다는 뜻이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非有覺). 왜일까요? 착각만 벗어나면 되기에 그렇습니다.

갈대처럼 서로가 서로에 의존하여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듯이 시각, 불각이나 본각이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를 기다려서 이루어졌지만(相待而成), 즉 시각과 불각과 본각이 서로 의존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한 비무각非無覺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각, 시각, 불각이 비록 서로 의존하지만 깨달음이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각覺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자성自性이 있어서 각覺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해도 본성은 없으므로 본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유각非有覺 즉,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개념 속에 빠진 그들의 상태를 깨트리려고 “각覺이라는 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죠. 비무각非無覺 즉 깨달음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린 이미 다 깨달아 있으니 깨달음을 위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깨달음이 없는 것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여 두 종류의 사람을 다 좌절시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써도 안 되고 애쓰지 않아도 안 되겠죠? 애쓰고 애쓰지 않음, 있음과 없음을 모두 떠나야 합니다. 이처럼 본각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하는 상相을 만들어 놓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불각不覺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에 “나는 깨달았어.” 하고 있다면 유각有覺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깨달았어. 경험했어. 체험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이 시대부터 이런 주의를 줍니다. 있는 것이 아닌데 있다고 느끼고, 경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다시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잘 보라는 것이죠.

미혹한 무지에 빠져 있다가 깨닫게 되는 것을 시각始覺, 견성見性이라고 합니다. 본성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각에만 있고 본각이나 대각大覺에는 없어야 합니다. 미혹을 벗어나서 본성을 보는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깨달음이므로, 이 견성의 순간에만 깨달음이 있고 본각에는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깨달은 본각이라는 입장에서는 시각에 깨달음이 없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깨달아 있는 상태이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로 올라가는 시각始覺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들이 말장난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각도 본각도 불각도 다 개념 속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뭔가 나아졌다고 여겨지는 도중에 “나는 이제 나아졌어/경험했어/체험했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또다시 개념 속에 빠지고 있음을 알아채야 합니다.

불각의不覺義라는 것은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험했어.”라는 생각에 에너지가 투입되며 사실감이 느껴지는 마음의 작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각, 불각, 현상, 대각 같은 용어와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승기신론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인데 제목에 믿을 신념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시십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不二의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